

通度寺 靈山殿의 『釋氏源流應化事蹟』 벽화 연구

李英宗*

- I. 머리말
- II. 『석씨원류응화사적』과 팔상도의 도상
- III.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의 내용 및 표현의 특징
- IV. 벽화의 편년 및 의의
- V. 맺음말

I. 머리말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소재 해발 1,050m의 영취산 기슭에 위치한 通度寺는 신라 善德王代 당나라에서 귀국한 慈藏에 의해서 창건되었다고 전한다.¹ 현재 통도사의 전각들은 하천을 따라 동서로 길게 늘어서 있으며 그 배치는 크게 上爐殿, 中爐殿, 下爐殿 세 부분으

*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강사

¹ 통도사 창건에 대해서는 『三國遺事』 卷四, 義解第五 慈藏定律條에 “乃創通度寺築戒壇以度四來”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사찰에 전하는 고기록들 중에는 더 자세하게 선덕왕 말년인 丙午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다. 『娑婆教主戒壇源流綱要錄』, 『通度寺誌』(아세아문화사, 1978), pp.83-100. 같은 책에 실린 『通度寺創始由緒』, 『朝鮮寺刹史料』 上(아세아문화사, 1978), pp.532-534. 창건 및 증수에 대해서는 李箕永 외 3인, 『通度寺』(一志社, 1974), pp.15-23 참조.

로 나눌 수 있다.² 본 연구의 대상인 영산전은 하로전의 중심 전각이다.

영산전은 정면 세 칸, 측면 세 칸의 다포식 맞배지붕을 한 건물이다. 건물 내부에는 오른쪽 동벽에 석가모니불을 안치한 主佛壇이 있고, 서벽에도 여러 불·보살상들을 안치한 낮은 불단이 마련되어 있다. 靈山會上圖와 八相圖가 주불단 후벽과 북벽에 봉안되었고, 서벽에는 유명한 見寶塔品變相圖 벽화가 있다. 또한 평방 위의 包壁과 上壁에는 『釋氏源流應化事蹟』 관련 벽화가 그려져 있다.³ 다른 전각의 경우에도 포벽이나 상벽에 벽화가 그려지는데 화면이 작기 때문에 불, 보살, 나한, 비천, 신선 또는 산수, 동물, 식물 등이 단순하게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각 내부를 화려하게 장엄할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통도사 영산전의 경우는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물들이 묘사되었고 화면 모서리에 그 장면과 관련된 畫題가 적혀 있어서 의도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간 영산전 내부에 봉안된 영산회상도나 팔상도에 대하여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져 통도사의 불화 및 화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영산전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서벽의 견보탑품변상도와 상벽과 포벽의 다양한 도상들에 대해서는 『법화경』 및 『석씨원류응화사적』과 관련된 벽화라고 밝히는 정도 이외에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⁵

본 연구는 영산전에 봉안되어 있는 팔상도에 표현된 많은 도상들이 『석씨원류응화사적』

² 통도사의 가람 구조를 세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李箕永 선생 외 3인이 집필한 위의 책에서 언급된 이래 대부분 논문들이 인용을 하였다. 洪潤植 선생은 禪院인 普光殿 지역을 별도로 보아 4개 지역으로 구분했지만, 노전지역과 선원지역이 각각 다른 신앙구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앞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洪潤植, 『通度寺의 가람구조와 그 성격』, 『佛敎美術』 14(1997), pp.51-75. 환경학과, 건축학과 등에서 다루는 통도사의 공간 구성, 가람 배치 및 조경 등에 대한 논문들도 대부분 초창 및 중창, 중수 연대를 앞의 책을 인용하여 세 지역으로 분류, 서술한다. 寺內에 전하는 기록들 중 상당수는 창건 설화 및 금강계단과 관련된 것들이며, 각 전각의 초창 및 중창에 대한 기록은 수도 적고 간략하다. 또한 현재의 전각들이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복원된 것이므로 각 전각의 초창 및 중수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³ 현재 원본은 성보박물관에 전시되고 있고 전각 내부에는 복제품이 걸려 있다. 서벽의 벽화에 대해 박도화는 다음 논문에서 견보탑품변상도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자고 제기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논문에서는 다보탑도, 보탑도 등으로 치칭되고 있다. 필자 역시 이 벽화는 견보탑품변상도로 명명하는데 동의한다. 朴桃花, 『朝鮮朝의 寺院壁畫』, 『朝鮮佛畫』(중앙일보사, 1984), pp.202-204.

⁴ 포벽은 평방 위 공포와 공포 사이의 좁은 공간이고, 상벽은 그 위 천장과 닿는 부분의 공간을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 李康根, 『朝鮮後期 佛敎寺院建築의 傳統과 新潮流 — 佛殿 內部空間의 莊嚴을 중심으로 —』, 『美術史學研究』 202(1994. 6), pp.136-137.

⁵ 朴桃花, 앞의 논문, p.202; 金廷禧, 『조선후기 불교회화』, 『佛敎繪畫』(한국색채문화사, 1994), p.249.



도 1 <영산전 동벽 전경> (필자 촬영)



도 2 <영산전 서벽 전경> (필자 촬영)

에서 채택된 것이라는 점에서 먼저 『석씨원류응화사적』과 팔상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연후에 상벽에 그려진 佛傳 설화의 도상들과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으며 그 내용과 특징이 무엇인지 규명해 보겠다. 더불어 하부 포벽에 그려진 고승 관련 벽화의 내용 및 표현의 특징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이러한 다양한 포벽화들이 그려지게 된 목적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들 영산전에 봉안된 영산회상도, 팔상도와 의 관계 및 사내에 전하는 기록들을 분석하여 이 벽화들의 제작 시기 및 제작자에 대해서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영산전에서 석가모니불과 관련된 불화들이 갖는 종합적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II. 『석씨원류응화사적』과 팔상도의 도상

영산전 내부는 동벽에 불단이 있고 그 뒤에 영산회상도가 봉안되었으며, 좌우 협칸의 창방 위 포벽에는 關屈山法華妙典과 妙悟法華라는 화제가 쓰인 벽화가 그려져 있다^{도1}. 맞은편 서벽에는 다보탑이 큼직하게 묘사된 국내 유일의 『法華經』 「見寶塔品」의 내용을 그린 견보탑품변상도가 그려져 있다^{도2}. 정면인 북벽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팔상도 8폭이 봉안되었으며, 동서 벽의 네 모서리와 남북 벽의 평방 위 공포와 공포 사이의凸모양 포벽과 그 위 직사각형의 상벽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의 여러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표1}.

먼저 포벽에 그려진 佛傳과 고승 관련 벽화들의 모본이 된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팔상도에 표현된 도상들은 어떠한 것이며, 영산전 벽화와는 어

표 1 영산전 내부 불화 배치도

		9	8	7		6	5	4		3	2	1		
		I	H	G		F	E	D		C	B	A		
①	권속	팔상탱	8	7		6	5	4		3	2	1	법화묘전	2
		북벽												
	견보탑품 변상도 벽화	서벽											영산 회상탱	용
		남벽												
②	권속	남벽											묘요법화	1
		a	b	c	d	e	f	g	h	i	j	k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석씨원류응화사적』의 구성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영산전 포벽화들은 『석씨원류응화사적』이라는 불전 판화의 도상에서 비롯되었다. 이 불전 판화는 조선 후기 팔상도의 다양한 도상들의 모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시되어 왔다. 중국에서 전래된 이 판화집이 국내에 유입된 경로와 불교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져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판화집이 어느 정도 印行, 유통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⁶ 다만 목판과 간행본이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고, 조선 후기 팔상도에 그 판화 도상들이 적극적으로 채용되었다는 점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⁷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국내에서는 두 종류의 판화집이 판각, 印行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고창 禪雲寺에서 판각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 佛巖寺에서 판각되어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본은 간행 과정과 체제가 다른데, 서문과 말문의 내용에 의하면 선운사판은 임진왜란 직후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가지고 온 것을 저본으로 하여 1648년(인조 26) 선운사에서 판각되었고, 불암사판은 1631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鄭斗源이 가지고 온 것을 1673년 불암사에서 판각한 것이다. 전자에는 1권 102, 2권 106, 3·4권 각 100항목으로, 모두 408항목의 설화가 수록되었고, 후자에는 1-4권

공히 100항목씩 400항목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⁸ 또한 양자의 도상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전자는 위에 판화, 아래에 내용이 적힌 '上圖下文'의 형식인 반면 후자는 우측에 판화, 좌측에 내용이 적힌 '右圖左文'의 형식으로 구성이 서로 다르다. 불암사판이 선운사판에 비하여 글씨와 그림이 훨씬 분명하고 시원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이러한 구성의 차이 때문이다. 비록 현재 통도사에 간행본이 남아 있지 않지만 가까운 직지사에는 1735년(영조 11)에 함경도 석왕사에서 인경되어 김해 중봉사에 봉안된 불암사판과 1781년(정조 5)에 인경된 선운사판이 소장되어 있어 18세기에 재차 인행되어 유통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널리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불암사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불암사판본은 총 4권으로, 1·2권에는 석가모니불의 일대기가, 3·4권에는 전범 제자들의 행적이 실려 있다. 1·2권의 200항목 중 석가모니불과 직접 연관된 항목은 2권의 89번째 항목인 '均分舍利'까지 모두 189항목이다.⁹ 석가모니불의 주요 행적을 전기 형식으로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도 이후 열반까지의 사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후는 일부 인도 승려들의 행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국 불교의 발전에 특별한 업적을 보인 승려들의 설화를 도해한 것들이다. 한나라 때 불교를 전한 竺法蘭 등의 일화에서 원나라 초기의 국사인 膽巴까지 실려 있으며, 梁武帝, 白樂天, 歐陽修 등 불교를 숭상한 황제나 지식인들의 행적도 실고 있다. 심오한 불교사상보다는 석가모니불과 승려들의 神異와 신심으로 불교를 신봉하고 보시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¹⁰ 송유억불의

⁶ 『석씨원류응화사적』에 대해서는 수록된 판화 때문에 불교학계에서보다 미술사학계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 연구가 되었다. 그 내용은 수용 과정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판화의 도상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판화집의 제작 과정, 수용과 간행, 불교계에 미친 영향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최연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도 그 논문을 주로 참조하였다. 姜鍊根, 「釋氏源流經板에 관한 研究 —佛巖寺刊 佛教版畫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李英宗, 「朝鮮時代 八相圖 圖像의 淵源과 展開」, 『美術史學研究』 215(1997. 9), pp.44-54; 최연식, 「朝鮮後期 『釋氏源流』의 수용과 佛敎界에 미친 영향」, 『普照思想』 11(보조사상연구원, 1998), pp.305-366.

⁷ 선운사판은 목판이 선운사에 52매, 국립전주박물관, 원광대박물관, 삼성출판박물관 등에 1-2매의 목판이 소장되어 있고, 간행본은 삼성출판박물관, 일본 天理大學, 직지사에 있는데, 직지사 소장본은 원본이다. 불암사판은 목판은 완질로 동국대에 소장되어 있고, 간행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도서관, 직지사 성보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도서관에 원본이 있다. 미국의회도서관에도 결권본이 있다고 한다. 최연식, 위의 논문, pp.309-311.

⁸ 중국의 간행본과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연식, 위의 논문, pp.307-316을 참고.

⁹ 李英宗, 앞의 논문, p.45.

¹⁰ 이러한 서술 형식은 이 판화집이 처음 만들어진 명나라 초기 대중에게 가까워지려는 불교계의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최연식, 앞의 논문, pp.321-323.

국시 아래서 억압받았던 조선시대 불교가 대중들과 쉽게 가까워지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형식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의 팔상도들이 기존의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석씨원류응화사적』이라는 불전 판화에서 다양한 도상들을 빌려와 더 화려하고 설명적으로 변하게 된 배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통도사 팔상도도 이런 과정중에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2. 팔상도에 표현된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도상

상벽의 불전 관련 벽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북벽에 봉안되어 있는 팔상도에 표현된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도상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팔상도의 도상이 『석씨원류응화사적』에서 빌려 온 것이라는 점에서 벽화의 도상과 비교, 분석을 하면 양자 간의 선후관계를 규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팔상도의 화제가 된 여덟 항목은 인도 불교에서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잡았던 八相과 전혀 다르며, 우리와 유사한 팔상관은 6세기 중반 중국에서 찬술되는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¹¹ 인도에서 공인되다시피 한 팔상은 탄생과 열반을 제외하면 모두 성도 이후 전법 기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초전법륜 이전까지의 행적에 집중되어 있다. 석가모니는 35세에 성도하여 40여 년 동안 활발하게 전법 활동을 펼쳤는데, 생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기간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팔상도는 초전법륜상과 쌍림열반상 두 폭뿐이다.¹² 15세기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등이 편찬될 당시 우리나라 八相觀은 성도 이후 전법 과정보다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고행을 하고 마군을 항복시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더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팔상관과 그 도상은 18세기가 될 때까지 일관되게 전승되었다. 18세기 경제적 안정을 토대로 양난 이후 피폐된 사원들이 건설될 때 새 佛殿을 화려하게 장엄하는 데는 이전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도상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씨원류응화사적』이라는 불전 판화는 팔상도의 새로운 형식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통도사 팔상도는 1775년 抱冠을 수화사로 여러 화사들이 함께 제작한 것으로 18세기 후반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약한 화사들의 화풍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¹³ 이 팔상도는

¹¹ 李英宗, 앞의 논문, pp.28-36.

¹² 석가모니불의 성도할 때의 나이에 대하여 문헌마다 조금 다르게 언급되고 있는데 30세설과 35세설이 우세하다. 지금은 35세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李箕永, 『석가』(한국불교연구원, 1999), pp.112-115.

표 2 통도사 팔상도에 도해진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도상

차례	이름 (화제)	화제 및 내용 (수록 번호)	수	수록	
1	兜率來儀相	瞿曇貴姓(4) 淨飯聖王(5) 摩耶託夢(6)	3	1권	
2	毘藍降生相	樹下誕生(7) 縱園踰城(8) 仙人占相(9)	3	1권	
3	四門遊觀相	路逢老人(22) 道見病臥(23) 路覩死屍(24) 得遇沙門(25)	4	1권	
4	踰城出家相	初啓出家(27) 夜半踰城(28) 車匿還宮(31)	3	1권	
5	雪山修道相	金刀落髮(29) 車匿辭還(30) 詰問林憊(32) 勸請廻宮(33) 調伏二僮(34) 六年苦行(35) 遠餉資糧(36) 牧女乳糜(37) 禪河澡浴(38) 帝釋獻衣(39)	10	1권	
6	樹下降魔相	坐菩提座(43) 魔女炫耀(46) 魔軍拒戰(47) 魔衆拽餅(48) 地神作證(49) 魔子懺悔(50) 菩薩降魔(51) 成等正覺(52)	8	1권	
7	鹿園轉法相	華嚴大法 轉妙法輪 布金買地 初建戒壇 小兒施土	보리수 아래에서 노사나불로서 화엄경을 설함 녹아원에서 교진여 등에게 四諦法을 설함 須達이 精舍를 보시하기 위해 황금을 갈아 땅을 구입 비구, 비구니 結戒壇과 비구 受戒壇을 세움 전생의 아육왕이 흉장난하다가 흙을 보시함	5	1-54 1-61 1-78 1-87 2-31
8	雙林涅槃相	雙林入滅(78) 佛母散花(82) 佛從棺起(83) 金棺不動(84) 金棺自舉(85) 佛現雙足(86) 凡火不然(87) 聖火自焚(88) 均分舍利(89)	9	2권	

18세기 초반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다양한 도상들을 채택하여 표현된 운홍사(1719년), 송광사(1725년), 쌍계사(1728년) 등의 팔상도에서 확립된 조선 후기 팔상도의 전형적인 형식에서 연유되어 한층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즉 기본적인 구성은 조선 전기 이래의 팔상도의 틀을 고수하되 도해진 인물들의 수가 훨씬 많아졌고, 배경이 더 화려하게 묘사되었다. <도솔래

¹³ 抱冠은 任閑의 양식을 계승한 화사로 파악되고 있다. 張姬貞, 「朝鮮時代 佛畫의 畫師 研究」(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pp.193-196; 鄭喜先, 「화승 任閑派 불화의 연구」, 『講座美術史』 26-2(2006), pp.679-685.

의상)부터 <쌍림열반상>까지 8폭이 영산전의 북벽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봉안되어 있으며, 각 상에 표현된 석가모니불의 다양한 사적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석씨원류응화사적』에 수록된 총 189항목의 불전 중에 통도사 팔상도에는 모두 45항목이 표현되었는데, <도솔래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은 3-4개의 주요 행적을 중심으로 표현되었고, 다음의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과 <쌍림열반상>은 8-10 장면으로 앞 상들에 비해 훨씬 다양한 사적을 담고 있다. <초전법륜상>의 경우는 40여 년의 전법 기간을 대표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5장면만 표현되었다. 이 구성 역시 조선시대 초기의 『석보상절』 등의 팔상 관화에서 연유되어 18세기에 완성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화제의 제목인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은 하단에 작게 표현되고, 대신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41위의 법신과 천룡팔부에 둘러싸여 화엄경을 설법하는 '화엄대법'이 화면 상단을 가득 채우고 있다.¹⁴

이러한 팔상도의 <초전법륜상>만으로는 석가모니불의 성도 이후의 다양한 행적을 알리기에는 미흡했을 것이다. 보다 많은 대중들과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불교를 신봉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거나 보시를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의 그림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산전 상벽에 그려진 다양한 불전 벽화들이 이 팔상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의 내용 및 표현의 특징

남북 벽의 평방 위 공포와 공포 사이의 공간인凸자형 포벽과 그 위 직사각형의 상벽에는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북벽에는 어칸과 좌우 협칸에 각 3장면씩, 총 9장면이 포벽과 상벽에 각각 그려졌으며, 남벽에는 각 칸에 4장면씩, 상·하부 각 12장면의 벽화가 그려졌다^{표 1}. 남북 벽의 포의 수가 다른 이유는 남벽의 바깥쪽이 영산전의 정면이기 때문에 더 웅장하게 보이기 위해 북벽보다 각 칸에 포를 하나씩 더 배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벽과 서벽의 양 모서리에도 남북 벽보다는 약간 작은 방형의 공간에 벽화가 그려졌다.

상벽과 포벽에 그려진 벽화의 내용을 분석하면, 상벽의 직사각형 화면에 그려진 벽화는

¹⁴ 이 기간이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였기 때문에 대개 『본행경』, 『인과경』, 『현우경』 등에서 인용된 여러 사적들 대신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경전 중 하나인 『화엄경』을 설하는 '화엄대법'을 택해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석가모니불과 관련된 것들이고, 하단의凸자형 포벽의 벽화는 고승들의 행적을 표현한 것들이다. 이처럼 상벽에 불전 관련 벽화, 포벽에 고승들의 행적을 다룬 벽화를 구분하여 배치한 것은 붓다와 승려의 위계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붓다는 승려보다 더 높고 넓은 공간에 배치하고, 승려는 상대적으로 낮고 좁은 공간에 배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이들 포벽과 상벽의 벽화는 계획되어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석씨원류응화사적』 관련 벽화들을 상벽과 포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상벽의 佛傳 관련 벽화

1) 도상의 내용

영산전의 내부 상벽에는 남벽에 12장면, 북벽에 9장면, 동서 벽에 각 2장면씩 모두 25장면의 불전 관련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들 벽화들은 각 화면의 모서리에 화제란이 있고, 4자의 화제가 적혀 있어서 어떠한 장면인지 알려준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각 도상들은 『석씨원류응화사적』에서 채택, 적용되었다 표3.

이 불전 설화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천인현초(북벽-7)'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부터 열반까지의 轉法 과정에 일어난 행적들이다. <표 3> 말미의 『석씨원류응화사적』에 수록된 순서를 보면 각 도상의 배치에 일관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현재 팔상도가 봉안되어 있는 북벽의 우측 1-3 도상들을 제외하고, 4-9의 도상들이 1권에 수록된 상대적으로 일찍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점이 주목될 뿐이다.

상벽에 표현된 이들 25항목의 불전 설화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설법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거나 보시를 하면 그 공덕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며, 둘째는 제자로 받아들이는 데 신분 제약을 두지 않는다거나 神異를 보이는 내용이고, 셋째는 설법을 청하거나 설법하는 석가모니불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넷째는 자식, 친구, 며느리의 도리 및 불살생과 업보 등 교화적인 내용을 표현한 것들이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음식과 옷을 공양한 공덕으로 성불의 수기를 받는다는 '시사득기(남-②)', '시의득기(남-⑨)', 설법을 듣고 추악한 용모가 아름답게 변한다는 '불화추아(남-③)', '추녀개용(남-⑤)', 아들에 의해 유폐된 韋提希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인만원(남-⑥)', 임종시 아들에게 계속해서 보시를 하라고 부촉하는 '축아반불(남-⑧)', 吉相이 석가모니불에게 풀을 보시한다는 '천인현초(북-7)'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는 100세가 된 나이 많은 노인, 인분을 치우는 천한 신분, 반대로 아주 부유한 사람 및 여인을 제자로 받아들이

표 3 상벽의 불전 관련 벽화의 내용

위치	순서	명칭	내용	비고
남	①	老人出家	나이가 많아 출가할 수 없는 노인을 제자로 받는 내용	2권-2
	②	施食得記	석가모니께 음식과 옷을 공양한 공덕으로 성불하는 내용	2권-36
	③	佛化醜兒	추악한 아이가 설법을 듣고 아름답게 변한다는 내용	2권-23
	④	玉耶受訓	패악한 玉耶에게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설하는 내용	1권-79
	⑤	醜女改容	추악한 여인이 설법을 듣고 아름답게 된다는 내용	2권-3
	⑥	夫人滿願	유폐된 韋提希 왕비의 소원을 들어 주는 내용	2권-4
	⑦	勸親請佛	외도를 믿다 병든 친구에게 붓다 만나기를 권하는 내용	2권-13
	⑧	囑兒飯佛	脩羅陀가 임종 시 아들에게 보시를 부촉하는 내용	2권-14
	⑨	施衣得記	석가모니께 옷감을 보시한 공덕으로 수기를 받는 내용	2권-36
	⑩	度除糞人	사위성에서 친한 신분의 旃陀羅를 제자로 받는 내용	2권-25
	⑪	目連救母	목련이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한다는 내용	2권-27
	⑫	楞伽說經	여러 보살들에게 능가경을 설하는 내용	2권-47
북	1	圓覺三觀	석가모니가 입적 시 보살들에게 원각경을 설하는 내용	2권-48
	2	般若真空	급고독원에서 수보리의 질문에 반야경을 설한다는 내용	2권-50
	3	請佛住世	석가모니께 열반에 들지 않고 남아 있기를 청하는 내용	2권-66
	4	度富樓那	부루나가 석가모니의 설법 제일의 제자가 된다는 내용	1권-62
	5	漁人求度	상대를 물고기라 놀린 과보로 百頭魚가 되었다는 내용	1권-80
	6	度跋陀女	跋陀羅迦卑梨耶라는 여인이 석가모니께 귀의하는 내용	1권-90
	7	天人獻草	吉祥이 석가모니께 풀을 보시한다는 내용	1권-41
	8	梵天勸請	범천과 여러 권속들이 석가모니께 설법을 청하는 내용	1권-60
	9	佛化無惱	사위성의 살인자인 앙굴리말라를 교화시키는 내용	1권-83
서	①	白狗吠佛	전생에 재물에 집착한 업보로 개가 되었다는 내용	2권-7
	②	祀天遇佛	치병을 위해 살생하여 제사지내는 악습을 일깨우는 내용	2권-19
동	1	證明說呪	관음보살이 진언을 통하여 중생 구제를 청하는 내용	2권-39
	2	佛救釋種	침공하는 유리왕을 설득하여 석가족을 구했다는 내용	2권-56

는 내용의 '노인출가(남-①)', '도제분인(남-⑩)', '도부루나(북-4)', '도발타녀(북-6)'와 살인자 앙굴리말라를 교화시켜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불화무녀(북-9)'를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경전을 설법하는 '능가설경(남-⑫)', '원각삼관(북-1)', '반야진공(북-2)'과 열반에 들지 않고 남아 있기를 청하는 '청불주세(북-3)', 범천 등이 설법을 청하는 '범천권청(북-8)', 관음보살이 진언으로 중생 구제를 청하는 '증명설주(동-1)'이고, 네 번째는 행실이 좋지 않은 급고독장자의 머느리에게 여인의 도리를 가르치는 '옥야수훈(남-④)', 외도에 빠져 병이 든 친구를 佛道에 귀의케 하는 '권친청불(남-⑦)',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제한다는 '목련구모(남-⑪)', 전생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짐승 이름으로 욕한 업보로 百頭魚로 태어났다는 내용의 '어인구도(북-5)', 재물에 집착한 업보로 개가 되었다는 '백구폐불(서-①)'과 유리왕을 설득하여 석가족을 구했다는 '불구석중(동-2)' 등 인간의 도리나 과보에 대해 강조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25항목의 설화표³는 앞 장에서 살펴본 팔상도에 표현된 45항목표²과 어느 한 항목도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천인헌초(북-7)'의 경우 25항목 중 유일하게 성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송광사(1725년), 쌍계사(1728년), 선암사(1780년) 팔상도에는 <수하항마상>에 표현되는 도상이다.¹⁵ 이처럼 다른 팔상도에 표현되는 도상이 통도사 팔상도에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천인헌초(북-7)'와 '범천권청(북-8)'이 현재 봉안되어 있는 팔상도의 <수하항마상>과 <녹원전법상> 위쪽에 배치된 것도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 25항목의 설화는 팔상도의 설화와 중복되지 않는 것들에서 채택되었고, '천인헌초'처럼 팔상도에 누락된 도상을 보완한 점, 그리고 '천인헌초'를 제외한 모든 도상이 성도 이후 열반 이전까지의 행적에 대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팔상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석가모니불의 다양한 사적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그려졌다고 보아도 될 듯하다. 그렇다면 벽화가 그려질 당시의 영산전에는 팔상도가 봉안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도상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이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불전 벽화들은 팔상도의 제작 시기와 비슷하거나, 그 이후에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산전의 상벽에 그려진 다양한 불전 설화들은 우리나라 팔상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¹⁵ 李英宗, 앞의 논문, pp.4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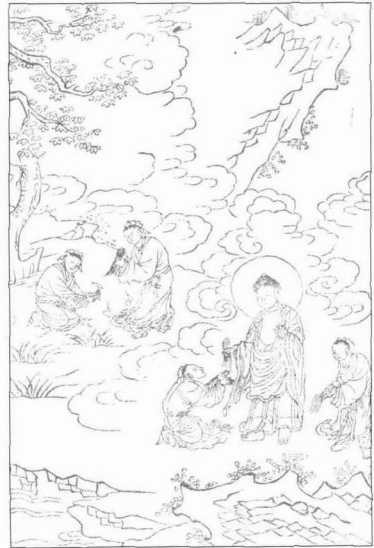
2) 표현의 특징

이상의 도상들 모두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의 판화에 연원을 두고 있고 표현상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므로 몇 가지만 대표로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화면이 화려하게 단청된 공포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좌우의 복잡하고 짙은 장식 문양들과 구분시키기 위하여 밝은 녹색조의 색으로 바탕을 칠하고, 인물과 건물을 녹색, 적색, 황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선명하고 화려하게 묘사하였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주변 단청의 색조가 박락되면서 일부는 화면과 유사한 색조로 변하여 벽화가 확연히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북벽의 <천인헌초>도3를 같은 화제의 『석씨원류응화사적』의 판화도4와 비교해 보면, 동일한 도상이되 인물의 수가 적어졌고 배경이 보다 간략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벽화에서 나무, 바위, 토파, 전각 등의 배경은 수목을 위주로 도식적으로 표현되었는데, 간혹 이 <천인헌초>의 소나무 표현처럼 짙게 채색되기도 하였다. 인물 표현의 경우는 <천인헌초>의 보리장로로 나가는 석존과 석존께 풀을 보시하는 길상의 모습처럼 짙은 채색, 날카로운 의습선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길상은 풀을 뜯는 모습과 석존에게 풀을 보시하는 모습으로 한 화면에 두 번 등장하는데, 동일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의복의 색이 다르게 채색되었다. 단색의 판화 도상을 토대로 화려하게 채색해야 했기 때문에 장식적인 면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채색을 담당할 화사가 佛傳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도 3 <天人獻草> 벽화, 18세기, 북 상벽-7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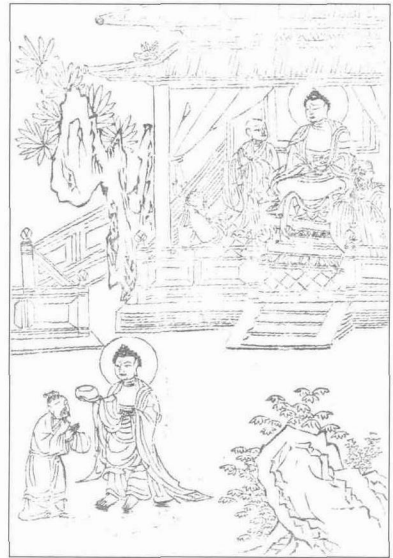
도 4 <天人獻草> 판화, 『釋氏源流應化事蹟』 卷1-41, 동국대학교 박물관



도 5 <施食得記> 벽화, 18세기, 남 상벽-②
(필자 촬영)



도 6 <施衣得記> 벽화, 18세기, 남 상벽-⑨ (필자 촬영)



도 7 <施衣得記> 판화, 『釋氏源流應化事蹟』 卷二

한편 남벽에는 '시사득기(남-②)' 도5와 '시의득기(남-⑨)' 도6라는 유사한 화제의 벽화가 있어 주목된다. 다른 모든 벽화들의 화제와 도상이 『석씨원류응화사적』에 실려 있는데, '시의득기'라는 항목은 있지만 유독 이 '시사득기'라는 항목은 실려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도상은 화사가 임의대로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상만 비교해 보면 『석씨원류응화사적』의 판화 '시의득기' 도7는 같은 화제의 벽화 '시의득기' 도6와는 사뭇 다른 도상이고, 오히려 판화집에 없는 항목인 '시사득기' 도5와 유사하다.

판화집에 수록된 '시의득기'는 한 바라문이 불타의 옷이 헤어진 것을 보고 집에서 백단

한 벌을 보시한 공덕으로 성불의 수기를 받자, 장자와 거사들이 작은 물건을 보시함으로도 큰 과보를 얻을 수 있냐고 묻는 것에 대하여 그 바라문은 전생에도 부처와 승려들을 집에 모셔서 보시를 하고 공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기를 받는다는 『賢愚因緣經』에 나오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¹⁶ 판화에는 하부에 수기를 받는 바라문이 표현되었고 상부에는 과거에 바라문이 집안에 초대해 공양을 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화제가 옷을 보시하여 수기를 받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보시하는 모습이 표현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고 판화만 보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모를 수 있다. 대신 한 남자가 발우를 들고 서 있는 석가모니불 앞에서 일견 음식을 보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판화의 '시의득기' 도상은 '시사득기'라는 비슷한 화제를 붙여 벽화로 그려졌고, 경전상의 주 내용인 옷을 보시하는 모습은 원 판화 집에는 없는 새로운 도상을 만들어 '시의득기'라는 판화상의 화제와 동일한 화제를 붙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판화에 표현된 집안에 앉아 있는 모습보다 벽화의 발우를 들고 서 있는 석가모니불과 함께 있는 모습이 부처를 초대하여 공양했다는 경전상의 내용을 보다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고 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진 <시의득기>도6의 경우 화면 좌측에 버드나무를 배치하고 상부에서 가지가 드리운 모습을 표현하였는데, 안개가 끼여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이처럼 원 도상에 없는 버드나무를 묘사하였지만 <시사득기>도5의 건물, 바위와 나무로 가득 채워진 배경에 비하여 간략하고 덜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이 도상이 원 도상에서 옷을 보시하는 장면만 채택하여 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각의 장면은 판화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대중들에게 보시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도상을 쉽게 풀어서 표현했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들 벽화들은 판화의 도상보다 세밀함이 부족하고 표현이 간략하다. 화면이 시야에서 먼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의 단청과 구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밝은 바탕의 배경에 짙은 채색과 간결한 표현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¹⁶ 李光雨, 『釋氏源流應化事蹟』 卷二(法寶院, 2006), pp.74-75.

2. 남북 포벽의 고승 관련 벽화

1) 도상의 내용

남벽과 북벽의 평방 위 공포 사이의凸자형 포벽화들도 앞에서 살펴본 상벽의 벽화와 위치 및 수가 같고, 도상 또한 『석씨원류응화사적』 판화에 실린 고승들의 설화를 모본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석씨원류응화사적』에 실린 211항목의 승려 관련 설화 중 21항목, 즉 10분의 1이 채택되었는데, 그중 4항목은 화제가 쓰여 있지 않거나 지워져서 정확히 어떠한 장면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 설화들 중 남벽 우측의 4장면만 『석씨원류응화사적』 2권에 실렸고, 나머지는 3권에 수록되었는데, 상벽과 마찬가지로 판화의 수록 순서와 벽화의 배치 순서는 일치하지 않으며 그 배치에 특정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 다만 4권에 수록된 시대가 올라가는 고승들의 설화는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택 기준이 시대가 내려가고 내용이 교훈적이며 널리 알려진 고승들의 설화에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4}.

주제는 첫째 승려들이 神異를 보이거나 외도를 교화시키는 내용, 둘째 여러 경전을 번역하거나 강론했던 승려들의 이야기, 셋째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부촉하는 내용, 넷째 출가자가 아니지만 불교를 옹호한 지식인들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신이를 보이는 항목으로 대승불교의 유명한 논사인 龍樹와 佛陀密다가 외도들을 항복시키는 ‘용수조론(남-㉓)’, 밀다지번(남-㉔)과 達磨가 갈대를 꺾어 타고 강을 건넜다는 ‘달마도강(남-㉕)’, 도교 도사들을 제도한 曇顯의 고사를 담은 ‘파도위승(남-㉖)’, 산속에서 머무를 때 호랑이들이 위호했다는 양나라 고승 法聰의 이야기인 ‘법총복호(북-A)’와 당나라의 고승 通慧가 신이를 보이는 ‘통혜신이(북-G)’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대당서역기』를 쓴 玄奘의 이야기인 ‘현장취경(남-㉗)’, 佛陀波利가 오대산에서 경전을 번역했다는 ‘원례문수(북-E)’, 관음경, 열반경, 정토경, 법화경을 옹맹 정진하고, 강론한 내용을 담은 ‘혜공처송(남-㉘)’, ‘견석점두(남-㉙)’, ‘권수정업(북-F)’, ‘청계성지(북-H)’가 있으며, 셋째는 富那奢존자가 馬鳴의 오만함을 굴복시켜 제자로 삼았다는 내용의 ‘마명사굴(남-㉚)’, 아난의 제자 商那가 優波鞠多에게 법을 부촉하는 ‘국다주산(남-㉛)’, 선종의 三祖인 僧璨이 慧可에게 법을 구하는 내용인 ‘승찬구법(북-I)’, 선종의 六祖 慧能이 五祖 弘忍에게 의발을 받는 내용인 ‘남파혜능(남-㉜)’, 네 번째는 慧遠이 陸修靜, 陶淵明과 교류하는 내용인 ‘호계삼소(북-D)’를 들 수 있다.

〈표 4〉에서 북벽의 B, C와 남벽의 ㉓, ㉔의 경우 마모가 되었거나 화제가 쓰여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북벽의 B, C의 경우 전각 안에 왕과 대신, 왕과 승려가 앉아

표 4 남북 포벽의 고승 관련 벽화의 내용

방위	순서	명칭	내용	비고
남	㉔	龍樹造論	외도를 굴복시켜 國人 모두를 출가시킨다는 내용	2권-99
	㉕	馬鳴辭屈	마명이 富那奢존자와 對論 후 자신을 낮추었다는 내용	2권-98
	㉖	密多持幡	佛陀密다가 神異를 보여 불교에 귀의케 한다는 내용	2권-97
	㉗	麴多籌算	優波麴多를 돌을 헤아리는 방편으로 제도한다는 내용	2권-96
	㉘	惠恭處誦	혜공이 평생 『관세음경』만 공부했다고 답하는 내용	3권-53
	㉙	達磨渡江	달마가 갈대에 의지하여 강을 건너 소림사로 가는 내용	3권-46
	㉚	?	寒山子, 豐干, 拾得의 國清三聖(3권-83)	
	㉛	南派慧能	혜능이 불도에 뜻을 둔 후 弘忍의 衣法을 받는 내용	3권-100
	㉜	玄奘取經	현장이 어려움을 뚫고 경전과 불상을 구했다는 내용	3권-85
	㉝	罷道爲僧	曇顯이 도교 도사들을 불교에 귀의시키는 내용	3권-49
	㉞	豎石點頭	道生이 알려지지 않은 涅槃經 후품을 강론했다는 내용	3권-27
	㉟	?		
북	A	法聰伏虎	법총을 호랑이들이 위호하는 神異를 보이는 내용	3권-45
	B	?	明帝感夢(3권-6) 三教優劣(3권-12)	
	C	?	文帝問法(3권-29)	
	D	虎溪三笑	여산 慧遠의 陸修靜, 陶淵明과의 교류하는 고사	3권-24
	E	遠禮文殊	佛陀波利가 오대산에서 경전을 번역, 유포했다는 내용	3권-95
	F	勸脩淨業	善導가 정토교를 대성시켰다는 내용	3권-84
	G	通慧神異	통혜가 고행을 한 후 득도하여 神異를 보이는 내용	3권-81
	H	淸溪成地	灌頂이 智顓의 시자가 되어 법화경을 강론하는 내용	3권-68
	I	僧璨求法	중국 선종의 三祖인 승찬이 慧可에게 법을 구하는 내용	3권-57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화제는 쓰여 있지 않다. 판화집에서 B와 비슷한 장면으로는 한 나라 명제가 꿈에서 불상을 보았다는 '명제감응'과 오나라 孫權이 불교를 유교, 도교와 비교해 물었다는 내용의 '삼교우월'을 들 수 있다. 왕과 대신 또는 승려가 동석을 한 장면이라는 점에서 유학자들이나 관청과 시비를 피하기 위해 화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의 ㉚는 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석씨원류응화사적』에서 이와 같은 구성은 북벽에 그려진 '호계삼소(D)' 외에 寒山子, 豐干, 拾得이 기이한 행적을 보이는 '國清三聖'

의 예가 있다. 판화 도상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지 않아서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청 삼성’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벽의 ①는 마모가 심해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장면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들 도상들은 『석씨원류응화사적』에 수록된 잘 알려지고 교화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석씨원류응화사적』에는 ‘원례문수(북-E)와 ‘남파혜능(남-H)’ 사이에 유명한 신라의 승려인 義湘의 행적을 다룬 ‘還國傳法(3권-98)’이 있고, ‘권수정업(북-F)’과 ‘통혜신이(북-G)’ 사이에는 통도사의 개창 조사인 자장율사가 새들과 감응했다는 ‘慈藏感禽(3권-82)’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¹⁷ 이처럼 잘 알려진 우리나라 승려들의 설화가 영산전 벽화에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 이유로 먼저 자장의 경우는 1761년에 중수 단청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慈藏殿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¹⁸ 의상이나 화엄과 관련된 설화들이 배제된 것은 중로전의 중심 전각인 대광명전이 따로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 또한 영산전의 동서 벽에 『법화경』 관련 벽화가 그려졌다는 점에서 굳이 『화엄경』 관련 설화들을 표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여하튼 이 포벽화들은 영취산에서의 『법화경』 설법을 핵심으로 하는 영산전을 화려하게 장엄하는 효과와 더불어 석가모니불이 설법한 내용들이 후대에 어떻게 수호,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표현의 특징

판화의 경우 화면은 좁지만 눈앞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판각되어야 한다. 반면 포벽화의 경우는 높은 곳에 그려지기 때문에 판화처럼 세밀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남파혜능(남-H)’을 예로 들어 비교하면 『석씨원류응화사적』의 판화도8는 뒤 배경이 되는 산과 구름, 집 뒤의 대나무, 마당 앞의 바위 등 한 폭의 그림처럼 전체적인 구성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같은 화제의 포벽화도9에는 원 도상의 좌측 하단에 그려져 있는 흥인과 혜능의 문답

¹⁷ 李光雨, 앞의 책, 券三: ‘한국전법’은 pp.197-198, ‘자장감금’은 pp.165-166; 최연식, 앞의 논문, pp.356-357. 부록에 『석씨원류응화사적』 본문의 차례와 간략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¹⁸ 「各法堂初重創記念」, 『通度寺誌』(아세아문화사, 1978), p.187. “慈藏殿 不二門 一柱門 重創斗口 再重創花月達允 重修丹青凝庵 虎峰 鳳岩 英祖王辛巳 慈藏幀 指空幀 懶翁幀 無學幀 施主房性輔 證師豐悟 西峰印摠 純祖四年甲子.” 慈藏殿이 현재의 어느 전각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자장전의 기능은 중로전에 開山祖堂이라는 당호의 삼문 안에 海藏寶閣이라는 현판을 단 전각이 조사당을 겸하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1900년에 크게 수리한 모습이라고 한다. 李箕永 외 3인, 앞의 책, pp.70-71.



도 8 <南派慧能> 판화,
『釋氏源流應化事蹟』
券三
도 9 <南派慧能> 벽화,
18세기, 남 포벽-⑥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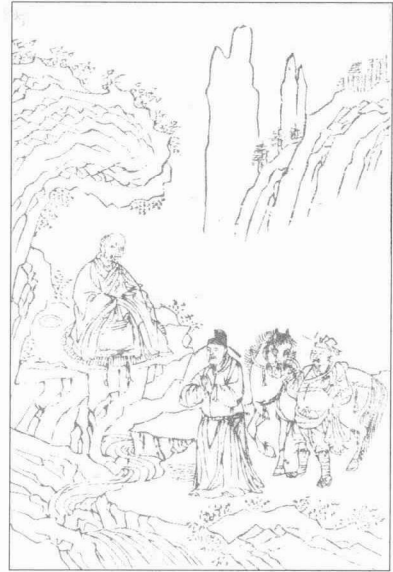
장면만 묘사하고, 밤중에 집안으로 불러 의발을 전하는 장면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한 장면만 선택하여 간략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배경의 소나무의 경우 판화에서는 잎이 무성하게 표현되었으나 벽화에서는 소나무 형상만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다른 벽화들도 대부분 이처럼 뒷부분의 배경을 간략하게 하고 인물들 중심으로 표현하였으며, 표현 형식은 배경은 대부분 수묵으로, 동물, 전각 등은 채색을 하여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하였다.

설화의 내용 중에 동물들이 등장하는 예가 있는데, 북벽의 <통혜신이(G)> 도10의 경우 통혜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방문한 房玄齡과의 조우 장면을 그린 것인데, 원래 판화의 도상도11은 태백산에서 수행하는 통혜를 찾아온 방현령이 말에서 내려 합장을 한 모습인데, 벽화에서는 관복과 관모를 쓴 모습이 아니라 판화에서 말을 끄는 마부의 위치에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화면이 좁기 때문에 세 사람을 모두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자세와 위치는 마부와 같지만 옷을 무관 복식으로 바꾸어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현령과 그가 타고 온 말의 표현은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直付使者圖>(1775년) 도12의 말과 使者의 위치, 말의 장식, 사자의 복식 및 포즈 등에서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 보았던 인물과 동물을 잘 그리는 화사가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¹⁹

¹⁹ 화기에는 시주자와 良工 玉仁, 志閑이라고만 쓰여 있다. 특히 옥인은 시왕도중 <第四五官大王>을 그리기도 했다. 시왕도 중 첫번째인 <第一秦廣大王>은 다음 장에서 언급될 指演이 그렸으며, 지한은 후에 지연과 함께 석남



도 10 <通慧神異> 벽화, 18세기, 북 포벽-G (필자 촬영)



도 11 <通慧神異> 판화, 『釋氏源流應化事蹟』 卷三

이렇게 화면의 제약 때문에 원 도상을 변형한 예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으며 가끔 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예가 있기도 하다. '칭계성지'는 수나라 때 승려인 灌頂이 낙안의 安州에 머무를 때 경관이 좋지만 물살이 빠른 계곡을 보며 평탄해지면 그곳에서 경전을 강론하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그 서원에 감응하여 계곡이 평지가 되자 거기서 『법화경』과 『금강명경』을 강론했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²⁰ 이러한 주제에 부합되려면 벽화 <칭계성지(북-H)>도13는 물살이 빠른 경관이 좋은 계곡을 배경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주제와 그다지 관련이 없는 사슴이 부각되어 표현되었다. 이러한 예는 앞에서 살펴본 <천인현초>도3에 한 화면에 두 번 등장하는 동일인을 다른 사람처럼 옷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것과 같은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도상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편 사슴과 灌頂 뒤에서 있는 시자의 모습은 18세기 후반의 민화나 도석인물화에 등장하는 도상들을 연상케 한다.

사 <지장탱>(1803년)을 함께 그리기도 한다. 옥인과 지한은 지연의 제자 또는 영향을 받은 화사로 추정된다. 韓政鎬, 『1792年 通度寺 掛佛幀 고찰』, 『1792年 梁山 通度寺 掛佛幀』(2003. 10) pp.8-9.

²⁰ 李光雨, 앞의 책, pp.138-139.



도 12 玉仁·志閑, 〈直付使者圖〉, 1775년,
건본채색, 104×83cm,
통도사 성보박물관



도 13 〈清溪成地〉벽화, 18세기, 북 포벽-H (필자 촬영)

3. 동벽의 『법화경』 관련 벽화

동벽의 불단에는 항마촉지인을 한 석가모니불상이 안치되었고, 불상 뒤에 18세기 전반 기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약한 任閑이 수화사로 참여하여 그린 〈영산회상도〉²¹가 봉안되어 있다.²¹ 그 좌우 벽에는 아무것도 그려 있지 않은 회칠된 상태이고, 그 위 창방 위쪽의 직각 삼각형의 포벽에 『闍屈山法華妙典(2권-52)』, 『妙悟法華(3권-59)』라는 화제의 벽화가 그려졌다.²² 좌측의 〈사굴산법화묘전〉²²도¹⁵은 석가모니불이 기사굴산(영취산)에서 불·보살 및 여러 권속들에게 『법화경』을 설했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석가모니불은 깊은 산을 암시하는

²¹ 1734년에 제작된 것으로 현재 통도사에 남아 있는 불화들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이다. 중앙의 석가모니불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보살 및 권속들이 엄격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고, 빨강, 녹색, 군청을 주조색으로 하고 황토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화사하면서도 안정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불화이다. 화폭이 두 기둥 사이의 폭과 정확히 들어맞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 봉안된 곳에 안치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任閑이 활약하여 그린 불화와 화풍에 대해서는 張姬貞, 앞의 논문, pp.107-111; 鄭喜先, 앞의 논문, pp.669-68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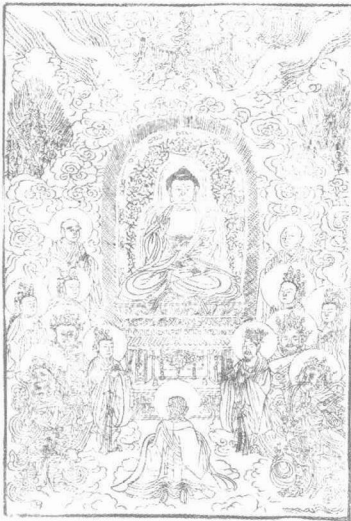
²² 영산회상도가 걸린 벽면 뒤에도 좌우 협칸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 만일 18세기 초 중창 당시에 벽화를 그렸다면 이후 중수단청 때 현재처럼 회벽으로 칠해졌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것도 단정할 수는 없다. 차후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회벽 안의 상태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도 14 任閑·敏輝·舜白·抱根,
〈영산회상도〉, 1734년, 견본채색,
339×233cm, 통도사 성보박물관



도 15 〈關屈山法華妙典〉 벽화, 18세기,
동 포벽-2 (필자 촬영)



도 16 〈法華妙典〉 판화,
『釋氏源流應化事蹟』 卷二



도 17 〈妙悟法華〉 벽화, 18세기,
동벽 우측 상단 (필자 촬영)



도 18 抱冠外, <兜率來儀相>, 1775년.
건본채색, 233.5×151cm,
통도사 정보박물관

암산을 배경으로 앉아 있고, 그 앞에 사리불이 홀로 앉아 문답을 나누고 있다.²³ 영산전 내부의 포벽화 중 유일하게 『석씨원류응화사적』의 같은 화제의 판화 <법화묘전>도16과 다르게 그려졌는데, 판화도상이 <영산회상도>도14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양자간 중복을 피하고, 더불어 기사굴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 다르게 표현된 것이라 생각한다. 표현 방식은 상벽이나 포벽과 마찬가지로 배경은 수묵으로 처리하고 인물은 채색을 하여 두드러지게 하였다.

동벽 우측의 <묘오법화>도17는 천태대사 智顓가 법화삼매에 들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설화를 표현한 것이다.²⁴ 물론 이 도상은 『석씨원류응화사적』의 판화와 동일하다. 이 항목을 채택하여 불단이 있는 주벽에 그린 것은 화제에 ‘法華’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도상이고, 또한 법화삼매를 수행

중에 큰 깨달음을 얻고 영산회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지의의 神異와 관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²⁵ 채운이나 인물 표현들에 있어서 팔상도 등의 탱화에 비해 거칠어 보인다. 1775년에 제작된 팔상도의 <兜率來儀相>도18과 비교해 보면, 전각의 기둥과 지붕의 색채, 큰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추녀의 선, 팔각지붕의 박공널에 두 개의 둥근 까치구멍의 표현 등 매우 유사하여 양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도상은 다른 포벽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화면이 크고 구성이 복잡하며 채색이 짙고 화려해 보이는데 불단 후벽에 그려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배경이 되는 산, 나무 및 바위 등을 먹으로 표현하고 채색을 짙게 하는 표현 형식과 인물 표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상벽과 포벽의 벽화와 유사하기도 하다. 여하튼 이 두 도상은 석가모니불과 천태지의의

²³ 『법화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실려 있다. 李光雨, 앞의 책, pp.106-107.

²⁴ 李光雨, 앞의 책, 卷三, pp.120-121.

²⁵ 중국에서 석가모니의 생애를 팔상으로 나누어 서술한 문헌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찬술된 것이 바로 지의의 『四教義』라는 점은 그의 일화가 주벽의 한 부분에 그려지게 된 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李英宗, 앞의 논문, pp.31-33.

행적을 묘사한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상벽, 포벽의 벽화들과 같은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보면 영산회상도, 서벽의 견보탑품변상도를 보완해 주는 『법화경』 관련 벽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²⁶

IV. 벽화의 편년 및 의의

이상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의 내용과 도상의 특징 및 팔상도와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 포벽화의 제작 시기와 화사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벽화의 특성상 탕화와 달리 화기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내에 전하는 문헌기록으로 1912년 이전까지 전하는 기록들을 정리한 「各法堂初重創記念」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정조 때 芝峰巨機가 중수단청을 했고 達允, 定心, 理性이 중수개채를 했다고 간략히 기록되었을 뿐이다.²⁷ 이 기록으로만 보면 정조대에 영산전을 중수단청을 하고 다시 중수개채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중수단청과 중수개채를 다르게 보아야 하는데, 다행히 이 문헌기록을 보완해 주는 「靈山殿重修兼丹牆記」라는 현판 기록이 남아 있다.²⁸ 시주자들이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불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듯하다. 기록 말미의 내용을 요약하면 1792년(乾隆 57) 영산전 중수단청에 智峰堂巨機가 화주가 되고, 都木手 義弘, 副片手 金成臣, 畫員 指演, 片手 有逢이 참여하였다고 한다.²⁹

²⁶ 영산전의 불화 중 『법화경』과 관련된 불화인 <영산회상도>, <견보탑품변상도>와 이들 두 포벽화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하고, 벽화의 제작 시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언급하였다. 차후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²⁷ 「各法堂初重創記念」, 『通度寺誌』(아세아문화사, 1978), p.183. “靈山殿 重創 松谷正眼 禪岩致源 月墟戒清 楓岩朗日 任開清印 / 重修丹青 芝峰巨機 重修改彩 達允, 定心, 理性 正祖時 / 後佛幀新成 證師指空尊者 狝施通政以順 英祖十年甲寅奉安 / 八相幀 大施主嘉善照英 繪主義日 繪及圓明垢施主花峰偉札”

²⁸ 「靈山殿重修兼丹牆記」, 『通度寺誌』(아세아문화사, 1978), pp.489-492. 현판은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 남기는 것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현판이 뒤에 쓰인 문헌기록보다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판 내용은 앞부분에 거기대사가 중수를 하게 된 연유와 건륭 57년이라는 연대를 밝히고 있다. 그 뒤로 시주질, 연화질이 쓰여 있으며, 도목수와 화원 등의 이름은 연화질 말미에 실려 있다.

²⁹ 지연과 유봉은 같은 해 세존비각을 중수하는 데도 함께 참여하였다고 기록되었는데, 지연이 수화사로 참여하여 제작된 <괘불>(1792년), <삼장탱>(1792년), 명부전 <지장탱>(1798년), 백운암 <지장탱>(1801년), 석남사 <지장탱>(1803년) 등에 유봉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통도사의 다른 불화에도 이름이 없어 오기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분석이 요구된다. 「靈山殿重修兼丹牆記」, 위의 책, pp.489-492.

이 두 내용을 종합하면 앞서 정조대라는 기록의 연대는 1792년이고, 지봉당 거기 스님이 화주가 되어 중수단청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현판 기록에 도목수, 부목수, 화원, 편수의 이름이 함께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중수단청이라는 의미는 건물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새로 단청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더구나 화원 지연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약한 대표적인 화원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건물의 채색 단청에 참여했다기보다는 불화를 그리는 데 참여했거나 또는 감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각법당초중창기념」에 언급된 중수단청은 이처럼 정리할 수 있지만 중수개채라는 기록은 여전히 의문이다. 달윤, 정심, 이성 세 사람은 천왕문 중수개채에도 함께 참여했고, 달윤은 자장전을 재중창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³⁰ 이들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지만 통도사에 남아 있는 불화들의 화기를 통해서 19세기 전후한 시기, 즉 지연과 같은 시기에 활약한 통도사 승려였음이 확인되었다.³¹ 앞서의 기록이 맞다면 영산전 중수개채의 화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792년의 「영산전중수검단화기」 현판에는 이들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또한 중수단청을 하고 몇 년 되지 않아 다시 중수개채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912년에 이전의 기록을 정리할 때 생긴 오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1792년에 지연에 의하여 영산전에 무엇인가 그려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그렇다면 1792년에 지연이 그린 것이 이 연구의 대상인 포벽화인지 『법화경』 관련 벽화인지, 아니면 양자 모두를 그렸는지 규명하는 문제가 남는다. 영산전과 관련된 절대연대로 영산회상도가 봉안된 1734년, 팔상도가 봉안된 1775년 그리고 지연이 그 무엇인가를 그린 1792년 세 시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 세 시기를 토대로 비슷한 시기에 활약한 화사들과 그들의 작품 경향의 분석을 통하여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영산회상도가 봉안된 1734년을 상정해 보면 중창될 때 영산전 내부에 벽화가 그려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영산회상도〉도¹⁴의 화사한 설채법, 유려한 인물 표현, 부드러운 의습선, 굴곡이 많고 세부를 가는 먹선으로 세밀하게 묘사한 彩雲의 표현 방식은 포벽화들이나 『법화경』 관련 벽화들의 질은 채색법, 도식적인 인물 및 구름

³⁰ 「各法堂初重創記念」, 앞의 책, pp.187-188.

³¹ 〈괘불〉(1792년)에는 魚山比丘로 이성이, 용화전 〈後佛幀〉(1798년)에 持殿比丘로 달윤과 이성이, 指演이 수화사로 참여해서 그린 명부전 〈地藏幀〉(1798년)에는 持殿으로 달윤, 이성이, 대광명전 〈神衆幀〉(1804년)에는 달윤만이 維那로 기재되어 있다. 정심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아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달윤이 1804년에 유나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19세기 초에는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체로 지연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승려로 추정된다.

표현과 차이가 많아 양자가 같은 시기에 그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현재의 벽화는 1734년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보아야 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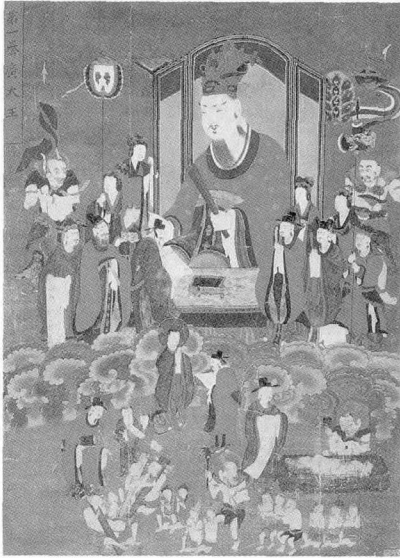
다음으로 팔상도가 그려진 1775년을 고려해 보면 팔상도와 상벽의 벽화들 모두 『석씨원류응화사적』의 佛傳 도상에서 채택하여 그렸는데, 양자간 도상이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과 통도사 팔상도에 누락된 도상을 추가 하였다는 점에서 벽화가 그려지는 시기에 팔상도가 이미 봉안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벽 우측 포벽의 <묘오법화>도17와 <도솔래의상>도18의 유사한 건물 표현이 벽화가 팔상도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영산전의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는 팔상도가 봉안된 이후에 팔상도에 부족한 석가모니불의 행적을 보완하고 전각 내부를 화려하게 장엄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통도사 및 인근 사찰에 남아 있는 불화들의 제작 시기를 분석해 보면, 1734년 任閑이 수화사가 되어 제작한 영산회상도 이후 그와 그의 제자들이 통도사, 운문사를 중심으로 18세기 중반까지 활발하게 활동했음이 그간의 연구에서 밝혀졌다.³²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1775년 팔상도 조성 이후 1792년 대대적인 불사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통도사에서 불화 제작은 뜸했던 것 같다. 이는 그 기간중에 제작된 불화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데서 확인된다. 그러다가 1792년 괘불 제작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불화 불사가 이뤄지는데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指演이다. 지연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18세기 중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통도사를 중심으로 경상도 인근에서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³³ 영산전의 단청 외에 1775년 통도사의 시왕도 중 <第一秦廣大王>, 1792년 <괘불>과 <삼장탱>, 1798년 명부전 <지장탱> 제작에 수화사로 참여하였다.³⁴ 참여한 불화 중에 지장탱이 많아 특별하게 지장탱을 잘 그렸던 화사였던 것 같다. 영산전 벽화 중 <청계성지>도13 중앙에 합장을 한 승려의 모습과 합장한 손 아래로 흘러내리는 소매자락의 표현, 채색법 등이 1775년 제작한 명부전 <제1진광대왕>도19 중앙의 지장보살의 표현 형식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중앙의 채운을 표현하는 형식은 <영산회상도>도14나 <팔상도>도18보다 동벽

³² 鄭喜先, 앞의 논문, pp.679-684; 韓政鎬, 앞의 논문, pp.5-15.

³³ 지연과 임한의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임한의 불화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임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鄭喜先, 앞의 논문, pp.683-684.

³⁴ 통도사에서 제작된 것 외에 1792년 은혜사 <감로탱>, 1801년 백운암 <지장탱>, 1803년 석남사 <지장탱>에도 수화사로 참여하였다. 지연과 제자들의 작품 일람은 한정호, 앞의 논문, p.9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만 1775년작 시왕도 중 지연이 그린 <제1진광대왕>, 옥인이 그린 <제4오관대왕>, 옥인과 지한이 그린 <적부사자도>가 누락되었다.



도 19 指演·太演,〈第一秦廣大王〉, 1775년,
견본채색, 120.5×86.5cm,
통도사 성보박물관

의 〈묘오법화〉³⁵의 표현법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명부전에 함께 봉안된 〈直付使者圖〉(1775년) 도12의 사자와 말의 표현이 영산전 벽화 〈통혜신이〉³⁶의 방현령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했는데, 〈직부사자도〉를 그린 화사 玉仁, 志閑이 지연의 제자이거나 그의 영향을 받은 화사라는 점에서 양자간의 유사성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³⁵

정리를 하면 1792년은 통도사에 대규모 불화 제작이 이루어진 시기이고, 중수단청을 했다는 확실한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이 벽화의 제작 시기를 1792년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더불어 당시 佛事를 주도한 지연이 현판의 기록대로 벽화 제작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다만 서벽의 〈견보탑품변상도〉와 외벽의 〈관음보살도〉도 같은 시기에 그려진 것인지는 추후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³⁶

이들 벽화는 다른 사찰의 영산전이나 팔상전에서는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통도사 영산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육신은 열반하였지만 일심으로 보고자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그때 대중들과 함께 영취산에 나타날 것'이라는 『법화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곳이 통도사 영산전이며, 그 결과물이 바로 〈영산회상도〉 외에 『법화경』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인 다보탑이 솟아나는 〈견보탑품변상도〉, 영취산임을 암시하는 〈사굴산법화묘전〉, 신심을 갖고 법화삼매에 들면 영산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묘오법화〉의 내용을 그린 벽화라 할 수 있다.³⁷ 영산전이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한 것을 기념하는 공간

³⁵ 한정호는 육인과 지한을 지연의 제자로 보았다. 한정호, 앞의 논문, pp.8-9.

³⁶ 〈영산회상도〉 옆에 그려진 〈사굴산법화묘전〉, 〈묘오법화〉와 본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서벽의 〈견보탑품변상도〉의 표현양식이 상당히 유사하며, 『법화경』이라는 같은 주제의 그림을 따로 그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동서 벽의 『법화경』 관련 벽화들도 『석씨원류응화사적』 관련 벽화와 같은 시기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³⁷ 鳩摩羅什 譯, 『如來壽量品』, 『妙法蓮華經』(『大正新修大藏經』卷九-262), p.37. "……一心欲佛見 不自惜身命 時我

이므로 『법화경』 관련 벽화와 석가모니의 전기를 그린 <팔상도>가 봉안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통도사 영산전에는 우리나라 팔상도에 부족한 부분인 전법 기간에 일어난 다양한 행적과 전법 승려들이 설화가 벽에 가득 표현되었다. 신분에 관계없이 신심을 갖고 불법을 믿고 보시를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쉬운 내용들로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보다 쉽게 알리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벽과 포벽에 그려진 45항목과 팔상도에 표현된 45항목의 설화, 그리고 동벽 좌우 협칸에 그려진 『법화경』 관련 벽화 2항목을 합해 모두 92장면이 『석씨원류응화사적』에서 채택되어 영산전의 내부에 표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불전 판화가 불전도류의 불화 제작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음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영산전은 내부에 장엄된 다양한 벽화들이 다른 사찰에 유례가 없고 제작 당시의 불교 신앙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불교사와 미술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전각이며, 상로전의 금강계단과 함께 불보사찰인 통도사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전각이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통도사 영산전은 18세기에 중창이 되어 1734년에 영산회상도가, 1775년에 팔상도가 봉안되었다는 것 외에 중창 당시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이 그간 전각 내부를 장엄하고 있는 『법화경』과 『석씨원류응화사적』에서 연유된 벽화들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팔상도의 도상들이 『석씨원류응화사적』에서 연유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먼저 상벽에 그려진 25장면의 불전 설화와 내용을 비교, 양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양자의 도상들은 전혀 중복되지 않았으며, 25장면의 벽화 중에 ‘천인헌초’ 외에는 모두 성도 이후의 사적들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천인헌초’는 다른 사찰의 팔상도들에는 표현되지만 통도사 팔상도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누락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나머지들도 성도 이후 열반까지의 석가모니불의 사적이 3-5장면밖에 표현되지 않는 우리나라 팔상도의 부

及衆僧 俱出靈鷲山…”

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이 벽화들이 제작될 당시에 현재 팔상도의 내용을 참조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들은 팔상도가 봉안된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였다.

상벽에 그려진 불전 벽화들의 내용은 석가모니불이 신이를 보여 중생을 제도하거나 자식, 며느리의 도리를 일깨우는 교화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신심을 갖고 불교에 귀의하거나 보시를 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제들로 불교를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포벽의 고승들과 관련된 벽화들도 석가모니불이 설법한 내용이 후대에 어떻게 수호, 전파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각 내부를 화려하게 장엄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석가모니불과 여러 고승들의 행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이라는 판화집이 대단히 유용했을 것이며 그 유통이 이러한 다양한 벽화를 제작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들 벽화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1912년 사내에 전하는 기존 기록들을 모아 정리한 「각법당초중창기념」에 언급된 간략한 기록과 「영산전중수검단확기」라는 현판 기록을 통해 1792년에 指演이 직접 참여했거나 그의 감독하에 영산전 중수단청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지연이 18세기 말 통도사에서 제작되는 대규모 불화 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화원이라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단청이 아니라 벽화 제작까지 포함하는 불사의 책임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석씨원류응화사적』 관련 포벽화들은 팔상도와와의 비교를 통해 팔상도가 봉안된 1775년 이후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1734년, 1775년, 1792년이라는 영산전과 관련된 절대연대들을 기준으로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불화들과의 양식 비교를 통하여 「영산전중수검단확기」의 기록대로 1792년 指演에 의하여 그려졌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불보사찰 통도사에서 석가모니불은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의미 있는 존재였을 것이다. 이러한 위상이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했다는 전설을 구현한 영산전의 규모와 내부 장식을 다른 사찰의 그것과 차별되게 만든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측벽인 동벽에 불단을 마련하고 입구인 남벽 외에 북벽에도 작은 출입문을 낸 구조는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1775년 당시의 건축 구조와 무관하게 팔상도가 제작되어 북벽의 출입문 위로 봉안됨에 따라 법당으로서의 기능은 축소되었고, 다시 1792년 중창불사시 벽화가 그려지면서 현재와 같은 구조로 완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다른 사찰에서처럼 대웅전을 보완해 주는 부속 전각이 아니라 석가모니불의 상주처이자 『법화경』을 설하는 영산회상의 장소인 독립된 공간으로 한층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

다. 18세기 경제적인 안정에 힘입어 양난으로 인해 파괴된 전각들이 중창될 때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불의 다양한 행적을 알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영산회상에 참여케 한다는 염원의 발현이며, 그 결과물이 현재의 영산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통도사 영산전이 갖는 불교 신앙적·미술사적 의의라 할 것이다.

외벽뿐만 아니라 내벽의 벽화도 그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이어서 시급한 보존 대책이 요구되는데, 최근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동서 벽의 『법화경』 관련 벽화, 단청 및 목재 등 건축사적인 부분 및 영산전과 일괄을 이루는 극락보전과 약사전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통도사 영산전의 총체적인 위상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key words) __ 통도사(Togdosa Temple), 영산전(Yeongsanjeon), 석씨원류응화사적(Seokssi wonlyueunghwasajeok), 영산회상도(Screen of Sokyamuni preaching on Mt. Grdhrakuta), 팔상도(eight scenes of Buddha's life), 견보탑품변상도(the appearance of Buddha Prahutaratna's jewelled stupa derived from the Lotus Sutta), 포벽화, 영산전중수검단확기, 지연(Jiyeon)

영산전은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했다는 전설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영산 회상도>와 <팔상도>가 봉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도사 영산전은 18세기 초에 중창되고 1734년 <영산회상도>가, 1775년 <팔상도>가 봉안되었다는 점 외에 중창 당시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남아 있지 않다.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팔상도의 도상들이 『석씨원류응화사적』에서 연유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먼저 상벽에 그려진 25장면의 불전 설화와 내용을 비교, 양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양자의 도상들은 전혀 중복되지 않았으며, 25장면의 벽화 중에 '천인헌초' 외에는 모두 성도 이후의 사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천인헌초'는 다른 팔상도들에는 표현되지만 통도사 팔상도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누락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나머지도 성도 이후 열반까지의 석가모니불의 사적이 3-5장면밖에 표현되지 않는 우리나라 팔상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이 벽화들이 제작될 당시에 화가가 현재 팔상도의 내용을 참조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들은 팔상도가 봉안된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하였다.

상벽에 그려진 불전 벽화들의 내용은 석가모니불이 신이를 보여 중생을 제도하거나 자식, 머느리의 도리를 일깨우는 교화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신심을 갖고 불교에 귀의하거나 보시를 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제들로 불교를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포벽의 승려들과 관련된 벽화들도 석가모니불이 설법한 내용이 후대에 어떻게 수호, 전파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각 내부를 화려하게 장엄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석가모니불과 여러 승려들의 행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이라는 판화집이 대단히 유용했을 것이며 그 유통이 이러한 다양한 벽화를 제작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들 벽화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1912년 사내에 전하는 기존 기록들을 모아 정리한 「각법당 초중창기념」에 언급된 간략한 기록과 「영산전중수검단화기」라는 현판 기록을 통해 1792년에 指演이 직접 참여했거나 그의 감독하에 영산전 중수단청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지연이 18세기 말 통도사에서 제작되는 대규모 불화 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회원이라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단청이 아니라 벽화 제작까지 포함하는 불사의 책임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석씨원류응화사

적』 관련 포벽화들은 팔상도와의 비교를 통해 팔상도가 봉안된 1775년 이후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1734년, 1775년, 1792년이라는 영산전과 관련된 절대연대들을 기준으로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불화들과의 양식 비교를 통하여 「영산전중수검단확기」의 기록대로 1792년 指演에 의하여 그려졌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불보사찰 통도사에서 석가모니불의 위상은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의미 있는 존재였을 것이다. 이러한 위상이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했다는 전설을 구현한 영산전의 규모와 내부 장식을 다른 사찰의 그것과 차별되게 만들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측벽인 동벽에 불단을 마련하고 입구인 남벽 외에 북벽에도 작은 출입문을 낸 구조는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1775년 당시의 건축 구조와 무관하게 팔상도가 제작, 북벽의 출입문 위로 봉안됨에 따라 법당으로서의 기능은 축소되었고, 다시 1792년 중창불사시 벽화가 그려지면서 현재와 같은 구조로 완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다른 사찰에서처럼 대웅전을 보완해주는 부속 전각이 아니라 석가모니불의 상주처이자 『법화경』을 설하는 영산회상의 장소인 독립된 공간으로 한층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 경제적인 안정에 힘입어 양난으로 인해 파괴된 전각들이 중창될 때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불의 다양한 행적을 알리고 고통 받는 이들을 영산회상에 참여케 한다는 염원의 발현이며, 그 결과물이 현재의 영산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통도사 영산전이 갖는 불교 신앙적·미술사적 의의라 할 것이다.

The Buddhist Mural Painting of the Yeongsanjeon in Tongdosa Temple

Lee Youngjong

Yeongsanjeon (靈山殿) is the hall for Sakyamuni Buddha in memory of preaching the Lotus Sutra on Mt. Grdhakuta (the Vulture Peak) at Rajagrha in India. The hall in Tongdosa was rebuilt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And in 1734 and 1775 were enshrined two hanging screens that are common in other Yeongsanjeons in Korea. The one is a screen of Sakyamuni preaching on Mt. Grdhakuta (靈山會上圖), the other palsangdo: eight scenes of Buddha's life (八相圖).

Besides these two pictures, two kinds of mural painting were drawn at the Yeongsanjeon in Tongdosa Temple. On the western wall was painted the appearance of Buddha Prahutaratna's jewelled stupa derived from the Lotus Sutra (見寶塔品變相圖). The scenes of Sakyamuni Buddha's life and narratives of many monks' were described on the narrow panels between two brackets of the upper and middle wall. These are most representative differences from other Yeongsanjeons in Korea. However it is not known when and by whom these mural paintings were projected.

Forty-five narratives of Buddha's life from Maya's dream to Nirvana were drawn on palsangdo of Tongdosa. And those iconographies were derived from the book of woodblock prints: Seokssiwonlyueunghwasajeok (釋氏源流應化事蹟). Only five episodes correspond to the life for forty-five years from Buddha's Enlightenment to Nirvana. They were not enough, I think, to show the glorious and brilliant achievements of Buddha's. The scenes of Sakyamuni Buddha's life painted on the rectangle panels of upper wall just under the roof, above mentioned, were

projected to supplement the shortage of palsangdo. They are total twenty-four narratives for forty-five years of Buddha's propagation except one, meeting with grass-cutter which has been left off the palsangdo. It may be noted in conclusion that the palsangdo had been enshrined when the painter projected and painted the mural painting.

On the panels of the middle wall were painted narratives of twenty-one monks who had shown miracles to propagate Buddhism as an Indian monk Bodhidharma crossed the river on a reed. These iconographies were also deprived from the above mentioned book of woodblock prints.

A hanging board (靈山殿重修兼丹牘記) made in 1792 provided a clue for solving when and by whom the mural paintings were projected. It shows monk painter Jiyeon (指演) and his assistant with two carpente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mpleting remodeling and painting the hall in 1792. But nobody can know what was painted then. In spite of this ambiguity,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Jiyeon had painted the mural painting concerning Buddha's life and twenty-one monks. Because he is a master led to the Renaissance of Tongdosa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Who can believe that a master painted colorfully only the wall and roof? And the expression of human gesture, costume, color tone and colorful clouds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other pictures by Jiyeon as *The First King of Hell* (秦廣大王, 1775) and *Ksitigarbha Bodhisattva* (地藏幀, 1792), etc. Furthermore, the narratives of Buddha's life on upper wall, above mentioned, were projected to supplement the shortage of palsangdo which was drawn in 1775.

Tongdosa temple has been well known for having Buddha's relic until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It therefore is natural that Yeongsanjeon should be planned magnificently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temples. When it was remodeled and painted in 1792, twenty-five narratives of Buddha's life and twenty-one of famous monks were painted on the wall to ornament the interior and to make them known to people easily. Then Yeongsanjeon has been completed for the memorial hall where Sakyamuni Buddha had preached the Lotus Sutra in the past and He is preaching it for us now.